



지역과의 상생에 힘써온 상생상회가 지역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소비자가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고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11월 25일(금)부터 11월 26일(토)까지

경상북도 포항의 농수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상생상회에 방문해보세요.

포항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메기를 비롯해, 골뱅이, 삼치와 같은 수산물과 유기농 부추, 포항초, 대파 등 농산물, 유기농 발효뽕잎차, 유기농 발효굴피차, 유기농 발효연잎차와 같은 특산품까지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터 상품 1만원 이상 구매고객 500명에게는 스프, 무농약느타리버섯, 발효차음료 중 선택 사은품을 증정하고

장터 상품 3만원 이상 구매고객 300명에게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증정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상생상회에 방문해보세요.

2022 상생상회x포항시 지역장터

○ 기간 : 2022.11.25(금)~2022.11.26(토)

○ 주요상품 : 포항초, 부추, 표고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 및 과메기, 사과 등 포항시 농수특산물

○ 주요행사

▶ 장터상품 1만원이상 구매고객 스프, 무농약느타리버섯, 발효차음료 중 택1 사은품 증정(선착순 500명)

▶ 장터상품 3만원이상 구매고객 친환경 장바구니 증정 (선착순 300명)

강진군, 빈집 활용 청년 주거·창업 공간 마련 '굿'



[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군은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방치된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성과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군은 실제 활용 가능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집집마다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발굴한 빈집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창업을 지원했다.

특히 적극적인 노력으로 빈집 소유주와 청년 입주자 간의 협력을 견인해 보증금 무료, 반값 임대료, 리모델링 기간 임대료 무료 등의 민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청년공간 조성과 더불어 창업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사회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쌀귀리, 화훼, 차, 청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됐으며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했다.

이를 위해 강진군 건설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구정책과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 사업을 서울시와 협력해 진행했다.

이러한 군의 노력은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 인구 유입을 주도하는 '청년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확산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강진원 군수는 "인구소멸과 빈집 문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 선도적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창조적 사업에 앞장 서 젊음과 역동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강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경기대와 물재생 혁신기술 개발 위한 공동연구 협약 체결

2022.11.07 14:26:59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 27일 글로벌 산업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 기술교류,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협약은 비대면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 이사장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간에 서면 교부로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및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물산업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술자료, 최신 기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 학생 교육을 위한 현장 제공 및 자문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물재생센터의 현안 해결과 운영관리를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두 기관의 공동연구 및 최신기술 교류를 통해 물산업 연구개발 증진 등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을 주도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물재생연구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내년도 물재생 분야 현안 해결 및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경기대학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하여 물산업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의 주요 연구업무로는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과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산업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시범사업”과 “테스트 베드(성능 시험장, Test bed) 서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워터 아카데미(Water Academy)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함으로써 물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해법)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산업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과 공정 최적화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이준성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물산업 역량강화, 스마트 솔루션 및 물 혁신사업의 전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계획이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학장 이병희)의 전문적 역량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이라 밝혔다.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물재생 분야 연구개발과 신기술 발굴을 통해 물재생 기술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고,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물재생 분야 기술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2일 영동군서 공연

입력: 2022.11.07 14:23 / 수정: 2022.11.07 14:23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오는 12일 오후 3시 충북 영동군 국악체험촌 우리소리관에서 '행복한 국악을 만나다'란 주제로 국악공연을 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공연에서는 김성국 단장의 지휘 아래 관현악 남도아리랑,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을 연주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6년 9월 영동군과 서울시 간 문화 교류 등 협약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10월 1일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서울 초청 공연에 이은 답방 공연이기도 하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1965년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창단 이후 국악의 현대화와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국악관현악 레퍼토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

thefactcc@tf.co.kr